

데스크 시각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을 허(許)하라



박진현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37세의 짧은 삶을 살다간 인상주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생전 '해바라기'를 많이 그렸다. 이글거리는 태양을 연상시키는 '해바라기'는 현재 런던 내셔널 갤러리, 뉴욕 메트로 폴리탄 미술관 등 세계적인 미술관 5곳에 소장돼 있다.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붓을 놓지 않았던 고흐를 닮아서인지 이들 미술관에는 '해바라기'를 찾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일본 도쿄에 자리한 세이지 미술관 역시 '해바라기'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곳이다. 말이 미술관이지만 1987년 손해보형사인 '손보 재팬'이 크리스티 경매에서 3900만 달러(약 400억 원)에 구입한 '해바라기'를 전시하기 위해 사옥 42층에 꾸민 갤러리다. 아시아권에서 '해바라기'를 관람할 수 있는 유일한 미술관이라는 후광효과로 지난해까지 약 1억 달러(1100억 원)에 가까운 입장료를 벌어들였다. 연간 1000만 명의 외국 관광객이 찾는 도쿄는 뉴욕이나 파리 못지않은 '예술의 도

시'다. 그도 그럴 것이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신미술관, 국립서양미술관, 모리미술관 등에 이르기까지 일본 근현대 미술과 서양 미술사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미술관이 30여 개에 이른다. 특히 롯폰기 힐스의 모리미술관은 인근의 국립신미술관, 산토리 미술관을 연계한 '아트 트라이앵글' 투어로 도쿄의 문화지형을 바꾸고 있다.

여행객들의 로망 '아트 도쿄'

하지만 '아트 도쿄'의 강점은 차별화된 콘텐츠다. 고흐의 '해바라기'를 비롯해 고갱, 르노와르, 로댕, 피카소 등의 작품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지난 10월 기자가 찾은 국립서양미술관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였다. 한 해 100여만 명이 찾는 미술관의 핵심 컬렉션은 선박왕 출신 마스가타 고지로가 기증한 370점의 프랑스 근대 회화. 쿠르베, 밀레, 마네, 모네, 르누아르 등 전시장에 내걸린 거장들의 작품이 진한 감동을 준다.

국립 서양미술관 취재를 마치고 나오는 길, 문득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에 장밋빛 미래를 걸고 있는 광주가 떠올랐다. 옛 전남도청 부지에 들어선 문화전당은 지난 2005년 첫 삽을 뜬 지 9년 만에 주요 4개 시설 공사를 마치고 오는 14일 준공을 앞두고 있다. 내년 3월까지 모든 시설이 완공되면 국내 최대 규모인 국립중앙박물관을 뛰어 넘는 매머드 복합

문화시설의 위용을 드러내게 된다. 바야흐로 문화로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새 역사를 쓰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유례없는 빅 프로젝트의 탄생을 앞둔 광주는 기대 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동시대 아시아 문화예술의 창조플랫폼을 내건 일부 콘텐츠가 '손에 잡히지 않는' 탓도 있지만 문화전당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광주 미술 인프라의 불거리가 너무 빈약해서다.

2000여 점의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는 광주시립미술관의 경우 국내의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는 작품들은 많지 않다. 이 때문에 수년 전 지역 미술계를 중심으로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을 유치해 컬리티 높은 컬렉션을 활용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미술관 부지와 '형평성' 등을 내세운 문광부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업된 일'이 됐다. 최근 도시재생 차원에서 옛 연초제조창에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을 유치해 '탄력'을 받은 청주시와는 사뭇 대조적이다.

‘문화전당 트라이앵글’을

사실 문화전당을 찾은 방문객들이 광주에 머물도록 하려면 주·야간의 다양한 볼거리가 넘쳐나야 한다. 특히 낮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콘텐츠는 대부분 전시와 연관이 있는 만큼 문화전당 인근에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미술 인프라들이 들어 서야 한다. 국립현대미술관 광주 분관 카

드를 다시 꺼내들어야 하는 이유다. 분관 유치의 전제조건인 미술관 부지는 문화전당과 가까운 중앙초교나 지난 1913년 세워진 충장로 우체국을 '강추'한다.

특히 충장로 우체국의 경우 최소한의 우편·금융 업무를 제외한 공간 대부분이 현재 민간업체에 임대된 상태다. 광주의 근현대사를 간직하고 있는 장소성을 살리기 위해선 문화시설로 공간에 활력을 불어 넣는 문화적 재생이 필요하다는 게 지역 건축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와 관련 최근 취임한 조진호 광주시립미술관장 역시 문화전당 인근에 시립미술관과 같은 인프라를 '입점'시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치 도쿄의 '아트 트라이앵글'처럼 큰 틀에서 문화전당과 '원형' 할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할 때인 것이다.

현대미술관 분관에 부정적인 문광부를 설득하기 위해서(필요할 경우) 윤장현 광주시장이 직접 광주 유치의 당위성을 설득시키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문화전당 아야말로 '청주 연초제조창'보다 잠재력이 큰 도시재생 프로젝트이지 않은가.

내년 9월 개관하는 문화전당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시설이다. 문화전당이 희망을 전파하는 문화발전소가 되기 위해선 '문화전당 밖'의 콘텐츠도 함께 준비돼야 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이제부터 가 시작이다. /jhpark@kwangju.co.kr

은편칼럼

국회·청와대 세종시로...수도이전 개헌 골든타임



류동훈 행복문화사업단 단장

다. 지식들을 직장도 서울로 보내서 일년에 겨우 몇 번 손주들의 얼굴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국민이 늘어났다. 또한, 휴전선과 인접한 수도 서울은 안보상으로도 취약함을 가지고 있다. 남북간에 전쟁과 같은 국가 비상상황이 터지게 되면 교통이 혼잡한 서울은 순식간에 마비가 될 것이고, 휴전선과 인접해 있어 청와대가 서울에 있는 것은 군사전략상 좋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수도 이전이었고,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 되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무산되었다. 헌법재판소의 '서울이 수도인 것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오래된 관습헌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도를 이전하려면 국민투표를 하는 개헌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그래서, 청와대와 국회는 빠고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정부부처만 세종시로 옮기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으로 바뀌어서 지금의 세종시가 만들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와 국회는 서둘러 열고, 정부청사는 세종시에 일단 먼저 대단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의 국가운영을 위해 세종시 건설을 무산시키려 하였지만, 당시 박근혜 대표와

충청권을 비롯한 국민들의 반발로 세종시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각 부처 장관들은 세종시 보다는 서울에 머무는 날이 많고, 공무원들은 잠깐 회의를 위해 세종시와 서울을 왕복하고 있으며, 간부급 공무원들은 국회, 청와대 등에 각종 회의 및 보고를 위해 세종시를 비우는 경우가 허다하다. 장관과 간부들이 세종시에 있지 않는데 어떻게 효율적인 정부부처 업무가 가능하겠는가? 국가 운영에 소통이 중요하네 이런 상황은 국가적인 낭비를 초래한다. 또한, 여전히 수도가 서울인 상황에서 세종시라는 경제, 문화, 교육 등 사회 전반의 지역 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의 가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청와대와 국회가 세종시로 옮기지 않으니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갖추지 못한 공무원들도 세종시로 정착하지 못하고 서울 출퇴근을 하는 것이다. 세종시로의 수도이전이 가시화되는 순간 방송, 교육, 기업 등 사회 각 분야의 지역 분산이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서울 중심의 국민의식부터 바뀌어 갈 수 있다.

요즘 대통령의 임기, 재임여부, 이원집정부제 등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개헌론

이 급부상을 하고 있다. 여야 각 정당 대표들의 언급이 있었고 구두장의 장작처럼 개헌론이 타오르고 있다. 권력 구조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국가 운영과 국가균형발전, 국가 안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속히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호남 지역 국회의원부터 이러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충청으로의 수도이전은 호남의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 역시 생활기반이 서울에 있기는 하지만, 국가적인 큰 대의 위해 세종시 수도이전 개헌을 결단해야 한다. 우리가 지켜야할 '개헌 골든타임'은 길에서 버리는 국가고급인력의 시간과 비효율적 의사소통 구조 속에도 적용해야 한다. 수도이전의 개헌론에 대한 이슈의 시작은 개헌론을 국민적인 관심사로 끌어 올려서 국가 전 분야에 있어서 개헌 담론을 쏟아지게 하여 새로운 시대 변화를 담을 새로운 그릇을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 고

‘대한민국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문기식 광주광산소방서장

로 알므로써 편안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 위한 것이다. 매년 이맘때면 주요 건물과 거리마다 불조심 현수막과 홍보물들이 게시되어 쉽게 눈에 띄고, TV와 라디오에서는 화재예방을 위한 다양한 내용이 보도된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런 문구들이 나오는 무관한 일,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만4746건이다. 이들 화재로 723명의 인명피해가 났고, 115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기 취급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화재의 위험성도 함께 증가하는 겨울철에는 가정과 직장에서 안전의식을 조금만 소홀히 한다면 곧바로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가져다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광산소방서에서도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 동안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적인 소방안전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또, 시민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선제적 화재예방 활동과 안전 환경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범시민 안전문화 조성과 자율방화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안전대책 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안전관리 유관기관과 내실 있는 협조·지원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입체적 화재예방 홍보캠페인, 안전광주 이야기꾸러미 작품 공모전, 유관기관 합동 불조심 캠페인 등을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판매시설과 다중이용업소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소방차량과 소방장비·소방용수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정비해 100%가 동상태를 유지하며 성탄절과 연말연시와 같은 취약시기에는 대형공방 및 창고시설, 터미널, 대형건축물 등에 대한 특별점검근무에 철저할 방침이다.

하지만 소방관서의 이 같은 노력만으로는 화재로부터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방관서의 노력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민 스스로가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물의 유지관리는 물론 각종 화기취급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생활주변에 안전사고 위험요인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자율적인 실천이다.

야생동물은 여름철 장마가 끝나면 대부분 겨울 준비에 들어간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11월은 겨울나기 준비에 철저를 기하는 준비의 달이 되었으면 한다. 가정과 직장에서는 석유난로나 화목보일러 사전 점검, 전기나 전열기구 안전점검, 수도나 보일러 동파방지 준비, 차량용 월동장비 준비 등을 통해 안전한 겨울나기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11월 '대한민국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나의 가정과 직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화재로부터 안전한 더불어 사는 광주' 구현에 시민 모두가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시면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세월호 사고 이제 진상 규명의 출발점 돼야

정부가 1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을 끝낸다고 공식 발표했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09일 만이다. 정부는 또 선체를 봉인 조치하고 인양 등 선체 처리는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기로 했다.

수색 중단은 실종자 가족들의 동의 하에 이뤄졌지만 그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실종자 9명의 가족들은 이날 진도실내체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색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지만 저희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이 시각 이후 수중수색을 멈춰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희생자를 생각하면 결코 수중 수색을 포기할 수 없지만 실종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선체 붕괴 위험 및 수색 여건 악화로 또 다른 희생자를 부를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실종자 가족들이 눈물로 용단을 내린 것이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7개월을 맞은 지금 책임을 제대로 묻고 있는지, 세월호

교훈을 익히고 실천하고 있는지 여전히 의문이다. 이날 세월호 선장과 기관장 등 선원 15명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5~36년을 선고했지만 유가족들은 참담한 심경이다. 수백명이 희생됐는데도 선장에게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 등 형량이 낮다는 데 있다.

유병인 일가와 청해진해운 관계자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들이 단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정작 책임이 큰 정부와 관련기관의 고위층 인사 중 사법처리된 예는 찾지 어렵다. ‘안전 대한민국’을 그렇게 외치면서도 대형사고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제 세월호는 수색 종료와 재판을 기점으로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 지난 7일 국회에서 통과된 ‘세월호 3법’은 정부 내 해당 책임자를 가려내 엄히 조치를 해야 하며, 완벽한 진상 규명을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

선체 인양에 있어서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자, 인양시 실종자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차가운 바다 속에 잠겨 있는 실종자들이 지켜볼 것이다.

기아챔피언스필드 투명하게 운영하라

광주의 새 야구장 '기아챔피언스필드'의 운영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야구장 상가 임대 내역 등이 공개되지 않아 특혜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의회 조오섭(북구 2) 의원은 최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에 대한 운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광주시 등이 야구장 운영 손익평가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가 감사원으로부터 기아차에 야구장 운영을 맡기면서 객관적 평가를 거치지 않고 협약을 체결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을 받은데다 그동안 특혜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조 의원은 시가 수익평가위원회 구성을 조건으로 기아차와 운영 협약을 체결한 만큼 후속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야구장 임대 상황도 명쾌하지 못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조 의원은 기아차가 2년간 임대수익 운영 수치 실태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총 임대면적 5492㎡ 가운데 15.2%인 834㎡만 빌려주고 나머지 4658㎡는 비워두고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새 야구장은 기아차가 건설비 994억원 중 300억 원에 부담하는 대신 25년간 부대시설(매점, 영화관, 주차장 등)까지 포함한 운영권 전체를 확보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공공시설물인 야구장에 특정 기업명을 넣은 데다 운영도 투명하지 못해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아차는 수익 운영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 광주시도 속히 수익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의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기독교가 주류인 서양에서는 기독교의 성인과 관계있는 이름이 대세다. 그중 가장 인기있는 이름이 바로 야곱이다. 영어로는 제이콥(Jacob), 잭(Jack), 또는 재키(Jake)로 불린다. '야곱'이 선호되는 이유는 기독교의 신 '하느님'이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한 이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배경이 있다. 기독교의 '창세기'에는 이삭의 아들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을 때의 이야기가 나온다. 야곱의

생과 그 이름이 상호작용을 하는 셈인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다.

역시 창세기 이야기인데, 야곱이 밤새 하느님(또는 천사)과 씨름을 한 데서 비롯된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야곱을 이기지 못한 하느님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느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고 말한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최초로 등장하는 순간인데, 그 이름 자체가 전투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야

인명 한자

슬라명은 역사 이후 계속 써우며 치열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혹자에 올릴 수 있는 '인명 한자'가 현재 5761자에서 내년 1월부터는 8142자로 확대된다. 이름을 특이하게 지으려는 추세다. 확산 되는데다 개명까지 유행하면서 '혹자에 올릴 수 있는 한자를 늘려야 한다'는 세간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남다른 이름으로 나를 드러내 보이거나, 이름이나마 위인을 따르려는 인간의 욕망은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 흥미롭다.

/홍행기 경제부장 redplan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 F A X 222-8005 >	< F A X 222-0195 >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 F A X 227-9500 >	< F A X 227-9500 >
사회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팀 2200-555	< F A X 02-773-9335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